

어린이 책꽂이

▲자유, 평등, 박애의 나라 프랑스 이야기=에펠 탑, 루브르 박물관, 오르세 미술관, 나폴레옹, 패션, 잔 다르크 등의 나라 프랑스의 모든 것을 담았다. 지리적인 태생, 역사적 경험, 프랑스인들의 삶 등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내용들도 소개돼 있다.

▲ABC 동물원=그림책의 대가 브라 이 언 와 일 드 스미스가 쓴 알파벳 그림책. 신나는 알파벳 찬트와 영어동요가 담긴 CD가 수록돼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알파벳을 익힐 수 있다.

▲역사로 배우는 교과서 삼국유사=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삼국유사의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 썼다. 고조선 왕검, 백제를 세운 온조, 연오랑과 세오녀 등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고래섬의 숨겨진 비밀을 찾아라=탐구능력과 창의력을 키워주는 과학 동화. 거미가 곤충이 아닌 이유, 물고기와 오징어 해부 등 식물과 동물의 생태가 상세하게 설명돼 있다.

▲뇌의 비밀속으로=뇌는 어떻게 생겼고, 어떤 원리로 움직일까. 뇌를 이해하는 데 꼭 알아야 할 뇌의 물리적 구조와 뇌의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뉴런 등에 대한 정보가 망라돼 있다.

'주식 투자의 오해와 거짓' 고발



세계 주요 증시가 폭락하면서 국내 금융시장이 주가가 100포인트 넘게 추락하고 환율이 급등락하는 등 혼란에 빠졌다. 사진은 한 증권사의 실시간 전광판에 표시된 증시상황. (연합뉴스)

주식 투자란 무엇인가 박경철 지음

고, 주식투자 경력은 늘고 있지만 계좌의 돈은 점점 줄어드는 주식 투자자들을 위해 '시골의사' 박경철이 '주식 투자란 무엇인가'를 펴냈다.

저자의 본업은 외과의사다. 하지만 취미삼아 경제이론이나 투자원리, 증시분석 등에 관심을 가졌던 것이 계기가 돼 지금은 증권사에 직원을 맡고 있다. 그의 저서인 '시골의사의 부자경제학' '시골의사의 아름다운 동행 1, 2' 등이 40만부 이상 판매되면서부터는 베스트셀러 작가 반열에도 올랐다.

저자는 "이 책을 읽는 사람 중 70%가 주식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며 "그래도 주식투자를 하겠다는 30%를 위해 이달 안에 분석방법을 담은 2권도 함께 내놓겠다"고 말했다.

저자의 말대로 책은 성공적인 주식투자 비법을 전해주기 보다는 고유가, 식량위기, 서브프라임 등 세계 경제현상과 금융위기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냉정하게 진단하고 경제 위기를 통찰하는 데 지면의 대부분을 할애했다. 시장의 보는 통찰력과 이성적인 판단력을 갖췄을 때 시장에 들어설 때와 나설 때, 주식을 살 때와 팔 때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자가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주식시장 100년 역사 중 시장평균 초과 수익률을 낸 사람은 10명 정도밖에 안 된다. 그는 윌스트리트 역사상 가장 성공한 펀드매니저로 평가받는 퍼터 린치가 은퇴할 당시 "이제는 가족과 함께 지내고 싶다"고 말을 남긴 것을 예로 들어 가족도 잊고 살 만큼 몰입해야만 성공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주식시장

이라고 말한다. 설령 그것이 가능하다 해도 가족을 버릴 만큼 주식투자에 몰입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저자는 되묻는다.

또 저자는 '모든 경제 전망은 사기'라고 주장한다. 주식시장은 우리의 이론과는 다른 체계로 움직이는 살아있는 유기체라서 예측 불가능하며 전망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도박이라고 말한다.

이러 '투자란 배우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운전처럼 최소한의 능력을 갖추어야 시작할 수 있는 것'임을 강조하며 현명한 투자자가 갖춰야 할 조건과 자세를 일러준다.

저자는 자산의 상당부분을 자선단체에 기부한 워렌 버핏은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가 아니라 코카콜라와 맥도널드에 가장 오랜 기간 투자하고 있는 자본시장의 큰 손에 불과하며, 안 보이는 이면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눈을 길러야 한다고 말한다.

'증권사는 투자자가 신용으로 산 주식으로 인해 가치가 과탄 나든 이혼을 하든 관심이 없다. 금융시장에는 피가 흐르지 않는다'거나 '우리는 타짜와는 도박을 하지 않으면서도 주식투자는 한다. 이유는 상대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등 저자가 작성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읽다 보면 주식투자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이 밀려든다.

<리더스북·2만원> /이메일 emlee@kwangju.co.kr

내 인생 한권의 책

안대희 '고전산문산책'

하어, 가을입니다. 어느 시인이 가을은 머나먼 하늘에서 차가운 물결과 같이 일렁인다고 했지요. 일렁이는 것이 하늘의 물결뿐일까요.

수신인에 당신의 이름을 올려놓고 글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같은 책을 다른 곳에서 사이좋게 나누는 사이, 당신은 벌써 따로 읽고 같은 문장에 그어질 밑줄의 필연을 가능하고 있을까. 책장마다 가을 서정도 함께 동봉할까 생각 중입니다.

요사이의 당신께서 문장의 집을 짓느라 분주하시다는 안부를 바람에 전해들은 바 있습니다. 종종 우리가 나뉘던 근원에 관한 이야기를 떠올리시지요.

이국의 문장가는 소리의 근원에 대해 물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쭙니다. 만약 책 속에 문장이 있다면 어찌 책장을 넘길 때 울리지 않을까, 만약 손가락에서 문장이 나온다면 손가락에서는 왜 들리지 않을까. 언젠가 당신은 문장의 근원은 마음에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우주의 근원이 우주 내부에 있지요.

발췌 가능하고 계시는지요. 저에게 고전은 영원히 새로운 텍스트입니다. 고전주의자는 아니지만 미래만큼 오래된 과거는 없는

헤어날 수 없는 가을 서정



것 같아요. 어느 순간 간절히 마주치게 될 미래의 과거, 혹은 과거의 미래.

고전 산문산책, 꼭 한 명의 동행을 청할 수 있다가에 당신을 떠올렸습니다. 그 길에서 조우하게 될 꽃과 나무 그리고 새, 혹은 생각난 듯 번지는 새의 눈물 몇 점. 우리는 수백 년의 시공을 바람처럼 떠나들며 감성과 사유의 텍스트를 거닐겠지요. 가만히 책 속 한 구절 물어 달라 청하는

당신이라면,

"눈물은 눈 속에 있는가? 아니면 마음속에 있는가? 눈 속에 있다고 한다면 응덩이에 물이 고여 있는 것과 같은 말인가? 마음에 있다고 한다면 빗줄을 타고 피가 흐르는 것과 같은 말인가? 눈 속에 있지 않다고 한다면, 눈물이 나오는 것은 다른 신체 부위와는 상관없이 오로지 눈만이 주관하므로 눈 속에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가? 마음에 있지 않다고 한다면,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눈의 작용으로만 눈물이 나오는 일은 없으므로 마음에 있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가능한가? 마음은 아래에 있고 눈은 위에 있는데, 물이 아래로부터 위로 흐르는 이치가 가능한 말인가?"

<심로송의 '눈물의 근원' 중>

심로송(沈魯崇·1762~1837)은 조선의 학자이자 문인입니다. 스스로 정병(精病)에 걸려 헤어나기 어렵다 고백했을 만큼 시정(詩情)깊은 영혼, 그런가하면 불교에 심취하여 '눈물의 근원'이 갖는 문체와 발상이 '응엄경'에 기대어 있다는 걸 엿볼 수 있습니다. 눈물에 대한 그의 물음은 '응엄경'속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문장에 여운을 두고 있음을 당시는 가능하겠지.

어느새 책장마다 동봉된 가을 서정, 가을은 머나먼 하늘에서 차가운 물결과 같이 일렁인다면 그 마음을 차마 헤아리지 못하겠습니다. 일렁이는 것이 하늘의 물결뿐일까요. 이 가을, 아껴놓았을 당신의 눈물이 하늘까지 번져 차가운 물결로 일렁일 테니.

이은규 <시인>



광주 출신 작가가 쓴 8편의 단편 소설

위험한 독서 김경욱 지음

광주 출신 소설가 김경욱이 소설집 '위험한 독서'를 펴냈다.

책에는 독서치료사라는 독특한 직업을 가진 주인공이 등장하는 표제작을 비롯해 평양과 개성의 맥도날드 점포 방화 사건을 등장시켜 테러에 대한 공포를 우스꽝스럽게 묘사한 풍자적 희극 '맥도날드 사수 대작전' 등 단편 소설 8편이 실려 있다.

그밖에 실패한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인 '공중관람차 타는 여자', 1988년 스페르타시 기숙학원에서 재수생활을 했던 한 남자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항울한 사춘기', '고독을 빌려드립니다', '달팽이를 삼킨 사나이' 등도 만날 수 있다.

2008년 현대문학상을 수상한 김씨는 한국일보 문학상 수상작인 '장국영이 죽었다고?', '누가 커트 코베인을 죽였는가' 등의 작품집과 장편 소설 '천년의 왕국' 등을 펴냈다.

<문학동네·1만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태조 한성 천도 등 조선의 대표적 논쟁

조선의 아고라 이한 지음

'조선 기담' 등 역사 관련 저서를 꾸준히 집필해온 이한씨가 조선 시대 벌어진 다섯 가지 논쟁을 짚어본 책 '조선의 아고라'를 펴냈다.

저자가 논쟁의 대상으로 삼은 주제는 다섯 가지다.

우선 한성 천도 논쟁. 태조가 새로운 도읍으로 천도를 결정한 이후 풍수지리와 실리적인 요인이 영기하면서 시작된 논란은 태조의 한성 천도, 정종의 개경 환도, 태종의 한성 천도로 이어지며 조정의 소용돌이로 불어간다.

저자는 또 효종 승하 당시 인조의 계비였던 장렬황후의 상복 문제를 놓고 벌어진 첫번째 예송 논쟁을 통해 둘째 아들이면서도 왕위를 이었던 효종과 아들 현종이 싸워진 정통성 문제를 짚어본다.

그밖에 정조 때 시행된 문체 변경 논쟁, 기존 세급 제도를 바꾼 공방 실시 논쟁 등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침이출판사·1만5천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44년 전통 합격률 1위
본원출신 전국수석 (승인명보 평균 96.7점)
"2009년 20회 공인중개사 시험대비는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준비하십시오"
기초과정 → 기본이론 → 심화이론 → 핵심요약 최종문제풀이
개강 11월 3일
기초이론 & 용어 해설
"년회원 수강 등록시"
수강료 20% 할인혜택 (50명)
주부반·성인반 (주간반, 야간반)
광주고시학원
직업인용을 위한 교육보험 원리과정
국비무료
개강일: 11월 3일
문의: 227-8003

새롭다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서구점 ☎ 361-8111
북구점 ☎ 268-8111
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전국 최대규모를 자랑하는 50명의 출제 위원회 교수진과 36개 학원 네트워크를 통해 합격시키는 강의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개강 11월 3일 (주,아)
주부반, 성인반 국비무료 재직자반
고용보험재직자 교육비환급
처음시작하신분들을 위한 기초이론 강좌
연회원 등록시 선착순 50명 수강료 특별할인
퀴즈무료
선착순 60명
전국 최대규모의 공인중개사 전문학원(전국33개 학원제인)
최고의 교수진들로 강의 질하는 학원 1위
선배합격자들이 추천한 1등학원
입문과 신뢰를 주는 학원 1위
합격률 1위 전국수석합격
새롭다 행정고시학원
서구점 ☎ 361-8111
동성동 서구청 앞 광주은행 건물 2층
북구점 ☎ 268-8111
학정이전, 오직복 북부영심사 건너편 새마을빌딩 4층

7.9 급 공무원 합격 대비
직종: 행정·세관·법집·철출·교보·보복·소기
정육무세원·철출공관·정견호지방술
'09년 시험은 지금부터
11월 1일(주·야간반) 모집
합격 회원 모집
6개월: 90만원 (교재 17만원 포함)
주·야간반+기초(美·國) 무료특강
※수강료가 저렴, 필수합격 확실함.
www.mdgosi.co.kr
222-4560

유네스코 인정 정규 대학교
한의대 유학! 국내에서 가능!
SCU한의대
캐나다, 미국
한의사가 될수있습니다!
www.scukorea.com
문의전화 010-6834-6253
취업 고민해결!
아메리카대륙에서 성공을!
입학상담/설명회 매일 오후 3시, 4시